

202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화요음악회

Tuesday Concert



가을의 낭만 *with* 리수스 콰르텟

2023. 10. 24 7:30 PM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 ◆

• 주최·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지원 서울대학교 학생처
• 문의 음악대학 기획연구센터 02)880-7914 musicsnu7914@naver.com

 SNU MUSIC

Program



가을의 낭만

with 리수스 콰르텟



LIFT for String Quartet ◆ Paul Wiancko

Part I

Part II

Part III - Glacial-Maniacal-Lift

String Quartet No.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 Franz Schubert

I. Allegro

II. Andante con moto

III. Scherzo. Allegro molto - Trio

IV. Presto



LIFT for String Quartet ♦ Paul Wiancko

오늘 감상할 Paul Wiancko의 <LIFT for String Quartet>은 Part 1부터 3까지의 총 세 악장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마지막 Part 3은 'Glacial-Maniacal-Lift'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인상적인 음향효과로 시작해 첼로와 나머지 악기들 사이의 대조적 요소를 사용한 Part 1, 오묘하고 잔잔한 부분과 리드미컬한 부분의 분위기 변화, 글리산도와 피치카토가 돋보이는 Part 2, 짙은 현악기의 현악 4중주의 음색과 스윙 리듬에 다양한 테크닉적 요소가 더해져 음향적으로 더욱 발전된 Part 3으로 구성되어있다.

♦ Paul Wiancko (1983~)

198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Paul Wiancko는 작곡가, 그리고 첼로 연주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음악가이다. 그는 다섯 살에 처음 첼로를 시작해 여덟 살에는 곡을 작곡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나타내기도 했다. 더불어 첼로 연주자로서 국제 콩쿠르 입상을 비롯해 여러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실력을 입증한 비앙코는, 특히나 콰르텟에 소속된 실내악 연주자로서 활동했는데, 2019년에는 꿈의 그룹으로 묘사되는 콰르텟 Owls을 설립했으며, 2023년에는 Kronos Quartet의 새 단원으로 발탁되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작곡가로서의 비앙코 역시 뛰어난 음악가인데, 특히나 현악 4중주 편성의 작품을 많이 작곡했으며, 영화음악이나 음악 편곡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 결과 다양한 실내악 페스티벌의 상주 작곡가로 활동했고, 2022년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22년 주목해야 할 작곡가 및 연주자 22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String Quartet No.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

♦ Franz Schubert

<String Quartet No. 14 in D minor, D.810 “Death and the Maiden”>은 1824년 슈베르트가 스스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작곡된 전형적인 4악장 구성의 실내악 작품으로, 슈베르트가 생전에 남긴 3곡의 현악 4중주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기도 하다. 작품의 부제가 “죽음과 소녀”인 이유는 슈베르트가 1817년에 썼던 동명의 성악곡 <죽음과 소녀>의 주제 선율이 현악 4중주의 2악장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성악곡 <죽음과 소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녀와 그런 소녀를 달래는 죽음 사이의 대화를 담아내었으며, 독일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를 가지고 작곡되었다. 현악 4중주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슈베르트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Franz Schubert (1797~1828)

19세기 초에 활동한 오스트리아 출생 작곡가 슈베르트는 베토벤과 함께 고전 시대와 낭만 시대를 잇는 주요 작곡가 중 하나로 언급되며, 각 시대의 이상을 모두 담아냈다고 평가받는 작곡가이다. 흔히 슈베르트를 떠올리면 ‘가곡의 왕’이 먼저 떠오르지만, 성악곡뿐만 아니라 관현악 작품이나 실내악 등에서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겨 현재까지도 많은 음악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음악 교육을 통해 건반악기는 물론이고 바이올린, 비올라와 같은 다양한 악기를 익혔으며, 후에 베토벤에게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슈베르트는 18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곡, 연주를 위해 방랑 생활이 시작했고, 수백 곡의 가곡, 현악 4중주곡, 교향곡 등의 다양한 작품을 남겼지만, 1828년 11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3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슈베르트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노래하는 듯한 선율, 실내악적 텍스처, 낭만의 기법이 묻어나는 화성적 요소의 사용 등이 있다.

Profile



리수스 콰르텟



RISUS QUARTET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 (Fischhoff Chamber Music Competition)에 총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문 우승과 함께 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리수스 콰르텟은 부상으로 주어지던, 같은 해 10월 미국 순회 연주와 스폰서인 Darnton & Hersh Fine Violin의 지원으로 시카고의 과르네리 홀에서 레코딩을 끝으로 북미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2022년 7월 이탈리아 투어 연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4월에는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Wigmore Ha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Competition)에서 특별상을 수상,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제37회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 (Chamber Music in Yellow Springs 37th Competition)에서 우승, 9월 ARD 국제 콩쿠르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Munich)에 Semi finalist까지 오르며 2020년 5월 결성 이후 이뤄낸 성과가 이들을 주목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 (Melbourne Inter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2023)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3위 및 특별상인 '현대음악 해석상'을 차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문 현악사중주단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리수스'는 라틴어로 웃음이라는 의미로 관객들에게 연주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2020년 5월에 창단되었다. 제1 바이올린 이해니, 제2 바이올린 유지은, 비올라 장은경, 첼로 마유경으로 구성된 리수스 콰르텟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네 명의 단원 모두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도미, 도독하여 인디애나 대학교,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in Berlin에서 석사를 졸업, Lübeck Musik Hochschule, 그리고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최고 연주자 과정 및 박사 학위로 졸업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Quartet Residency로 Miró Quartet을 사사하며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2020년 통의동 클래식 기획연주를 시작으로 서초 실내악 축제 연주, 2021 삼익 문화재단 부산 클래식 발전 협의회 이음 콘서트 연주로 경험을 쌓아왔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 지난 6월에는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제2 정기연주회를, 2022년 7월에는 롯데콘서트홀에서 리수스 단독 정기연주회 데뷔무대를 가졌으며, 2021년 8월에는 예술의전당 여름 음악 축제 공모에 22:1의 경쟁률을 뚫고 당선되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다. 2021년 광주문화예술회관 실내악 시리즈 연주, 제4회 제주 국제 실내악 페스티벌 초대, 2022년 금난새 뮤직센터 연주 (GMC Ensemble Series), 더하우스콘서트 연주, 부천아트센터 개관연주, 일신문화재단 프리즘 콘서트를 하며 한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콩쿠르뿐만 아니라 2022년 7월에는 Chigiana International Festival & Summer Academy 2022, The McGi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Academy(MISQA)에 전액 장학금으로 참여하며 Alban Berg Quartet의 Günter Pichler, Gerhard Schulz, Valentin Erben, Artemis Quartet의 Heime Müller, Tokyo Quartet의 Clive Greensmith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로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음악적 깊이를 넓혀가고 있으며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Profile



Violin 이혜너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 졸업, 인디애나 대학교 석사 취득(장학금 수혜),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박사과정 졸업(Teaching Assistantship, 전액 장학금 후원), Quartet Residency로 최고 연주자 과정(AD) 졸업.
- 음연콩쿨, 성정콩쿨, Enko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diana Concerto Competition, University of Texas String Concerto Competition에서 입상
- Tanglewood Music Center Fellowship Program, Music Academy of the West, Pacific Music Festival 참여(전액 장학금)
- 현) 리수스 콰르텟 리더, 선화예술학교 계원예고 출강

Violin 유지은

-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 수료,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인디애나 대학교 장학생으로 석사, 연주자 과정 취득, 텍사스 주립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전액 장학생)
- 국내 다수 콩쿠르에 1위 및 입상,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에서 연주, 미국 Indiana Chamber Orchestra와 협연.
- New York String Orchestra Seminar, Pacific Music Festival 참여(전액 장학생), 카네기홀 등에서 활동
- 현) 리수스 콰르텟 창단 멤버로 활동, 인천예고 출강

Viola 장은경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인디애나 대학교 석사 졸업(전액 장학생) 및 연주자 과정 취득,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Quartet Residency로 최고 연주자 과정(AD) 졸업.
- 세계일보 콩쿠르 1등, 한국 현악기협회, 음악 교육신문사 콩쿠르 대상 수상,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
- 예원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챔버오케스트라, 인디애나대학교 Chamber orchestra, Philharmonic orchestra와 협연.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lbk 챔버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장천아트홀 등에서 실내악 연주.
- 2023년 8월 예술의전당 인춘 아트홀 독주회 개최
- 현) 리수스 콰르텟, 앙상블 블루밍 멤버 활동, 인천예고 출강

Cello 마지경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및 수석 졸업,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 in Berlin에서 석사과정 수료, Lübeck Musik Hochschule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수료.
- 이화 경향 콩쿠르 1위, 동아 음악콩쿠르 1위, 코리안 심포니, Polish Chamber Orchestra와 협연, 금호 영아티스트 선정.
- 콩쿠르 부상으로 Bunard Greenhouse foundation에서 Scholarship 수혜.
- 국립심포니, 대전시향 객원 수석, Beethoven Ochester Berlin 객원 부수석 역임
- 현) 오케스트라,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